



보도	2024.1.25.(목) 석간	배포	2024.1.24.(수)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1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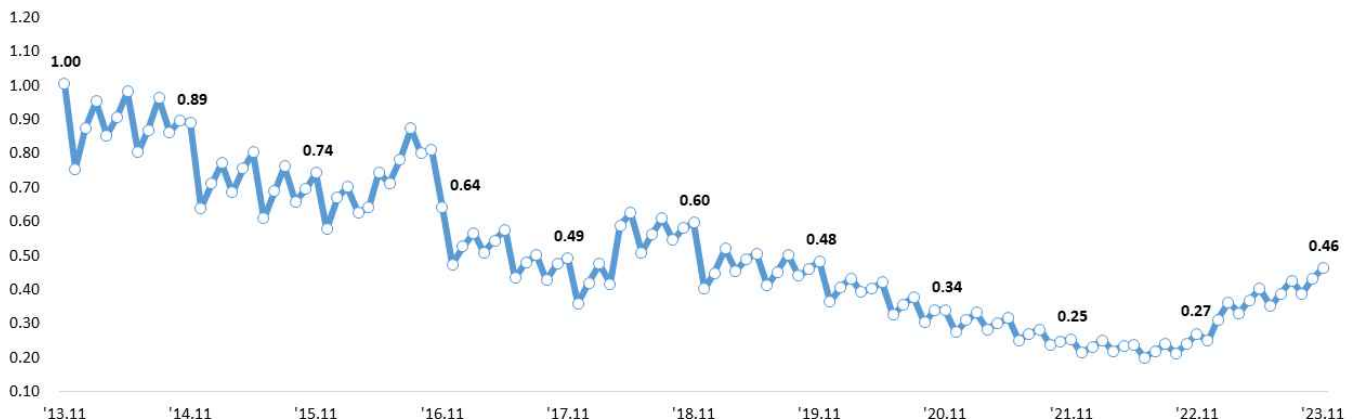
○ '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21.11월)	('22.11월)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0.9	1.4	2.0	2.0	2.2	2.2	2.4	2.7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7	0.8	3.1	1.1	1.4	3.0	1.3	2.0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2	0.6	△1.1	0.9	0.9	△0.8	1.0	0.8

○ '23.11월중 신규연체율('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6%) 대비 **0.06%p 상승**]

* 신규연체율(%) : ('22.11) 0.06 → ('23.7) 0.09 → ('23.8) 0.10 → ('23.9) 0.10 → ('23.10) 0.11 → ('23.11) 0.12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3.1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말(0.48%)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9%) 대비 0.23%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말(0.19%) 대비 0.01%p 하락 [전년 동월말(0.07%) 대비 0.11%p 상승]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5%)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4%) 대비 0.27%p 상승]
 - 중소기업 연체율(0.64%)은 전월말(0.59%)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40%) 대비 0.24%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51%)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26%) 대비 0.30%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9%)은 전월말(0.37%)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5%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4%) 대비 0.11%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49%) 대비 0.27%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11월~'23.11월)	'20.11월	'21.11월	'22.11월 (A)	'23.10월 (B)	'23.11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3	0.31	0.29	0.48	0.52	0.23	0.04
대기업		0.28	0.24	0.07	0.19	0.18	0.11	△0.01
중소기업		0.46	0.33	0.34	0.55	0.61	0.27	0.05
중소법인		0.62	0.43	0.40	0.59	0.64	0.24	0.05
개인사업자		0.27	0.20	0.26	0.51	0.56	0.30	0.05
가계대출		0.24	0.18	0.24	0.37	0.39	0.15	0.02
주택담보대출		0.16	0.11	0.14	0.25	0.25	0.11	0.01
가계신용대출등		0.42	0.36	0.49	0.71	0.76	0.27	0.05
원화대출계		0.34	0.25	0.27	0.43	0.46	0.19	0.03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3.11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10월(+0.04%p)에 비해 다소 축소*

* 연체율(%) : ('23.7) 0.39 → ('23.8) 0.43 → ('23.9) 0.39 → ('23.10) 0.43 → ('23.11) 0.46
(전월대비) (+0.04) (+0.04) (△0.04) (+0.04) (+0.03)

- 특히,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